

2025年 안전보건방침

효성중공업(주) 건설PU는 안전보건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실천하며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통과 VOC 경영활동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과 ESG경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보건방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I. 안전효성119 일상화로 '중대재해 근절'

전사적으로 안전효성119 활동을 전개하여 1일 1건 이상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일일 위험성평가 생활화로 사전 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필히 근절한다.

II. 절차를 준수하는 '안전매뉴얼경영 정착'

본사와 현장은 작업시 안전보건매뉴얼을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작업 중단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안전매뉴얼경영을 정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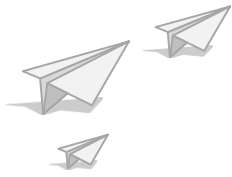
III. 소통과 경청을 통한 '안전보건역량 강화'

본사와 현장,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구성원간 신속한 보고와 의사결정을 위해 안전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당사 직원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인증제를 강화하며, 협력업체및 근로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전보건 소통문화를 구축한다.

효성중공업(주) 대표이사 **우 태 희** 

Harrington Place





2025年 안전보건목표

위험하면, 작업중단!

01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

- '29년 3,000일을 목표로 '25년말까지 중대재해 ZERO 1,655일을 달성한다.

02 '안전효성119' 및 '안전매뉴얼경영' 정착

- 전 직원은 1일, 1건 이상의 불안전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를 9축한다.
- 기본절차를 준수하고, 위험하면 작업중지하는 안전매뉴얼경영을 정착한다.

03 '안전소통' 으로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

- 안전보건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공유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다.
- 근로자, 협력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교육인증제 및 협력업체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가치임을 인식하고
상기 안전보건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효성중공업(주) 대표이사 우 태 희 

Harrington Place

